



해외양돈뉴스

- 홍보부 -

미국 올들어 대한(對韓) 돼지고기 수출 89% 증가

한국은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미국산 돼지고기 4,300톤을 수입했다. 이 수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9%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 7월 8일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한국이 7월부터 냉동 돼지고기 수입을 자유화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다소 주춤한 상태에서 증가세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들어 4월까지 미국의 축산물 수출은 쇠고기 12%, 돼지고기 20%, 기타 육류 21%가 각각 줄었으며 낙농품 10%, 가축 10%, 가공류 5% 등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곡물가격 하락, 옥수수 2년래 최저 수준

옥수수와 대두, 소맥 등 주요곡물의 선물가격이 계속 하락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카고 선물시장에서는 7월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이 부셸당 2달러 47.25센트로 4센트가 떨어져 2년만에 최저수준을 보였다.

또 소맥은 7월 인도분이 부셸당 3달러 25.75센트로 7.25센트가 떨어졌고 대두는 부셸당 13.5센트가 떨어진 7달러 87센트에 거래됐으며 다만 귀리는 부셸당 1달러 60센트로 1센트가 올랐다.

곡물거래상들은 당분간 강우량이 풍부하고 기온도 최적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곡물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돼지고기 긴급수입제한(SG) 조치 해제

일본 정부가 지난 1일자로 돼지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수입기준가격이 하락했다. 이제까지 긴급수입제한조치 해제를 겨냥, 돼지고기 통관량을 최소한으로 억제해 온 햄 소시지업체 및 상사들은 이달에 돼지고기 수입을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대만산 수입금지로 세이프가드들의 재발동 가능성이 낮은만큼 당분간은 필요량만 조달할 전망이다. 긴급수입제한조치 해제로 돼지고기 수입기준가격은 KG당 728엔19전에서 586엔76전으로 떨어졌다. 긴급수입제한조치 해제를 기다리고 있던 상사들이 통관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인데 수입량은 10만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8월 이후엔 수입증가세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다시 발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재발동을 염두에 두고 수입량을 미리 늘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돼지고기 소비가 많지 않은 점도 하나의 원인이다. 지난 여름에 병원성대장균 0157소동으로 여름매출이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엔 수입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세이프가드 해제와 동시에 조달량을 대폭 늘려 대량의 재고를 떠안았던 지난해와 대조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SG 해제후의 일본 돈육수입 전망

지난 7월 1일부터 돈육의 긴급수입제한(세이

프가드, SG)이 해제되어 관세가 1년만에 통상수준으로 돌아왔다. SG해제를 고대하던 수입상사나 햄제조업체는 7월 수입물량을 늘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머무르겠고 차츰 안정적인 수입이 정착될 전망이다. 또한 대만산 금수조치와 가격상승으로 한때 저조했던 소비도 야끼니꾸를 중심으로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돈육수입에 있어서는 관세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위해 각 부위를 조합하여 수입 단가를 조정한다. 일반가정에서 소비되는 돈육은 어깨부위등심, 안심등이 중심이다. 수입 냉장물은 주로 정육 판매되고 목등심, 등심, 안심등 세 부위 혹은 불기살을 더한 4부위를 조합하여 수입되는 경우가 많다.

냉동품은 햄, 소시지 가공용의 비율이 높다. 국가별로 부위의 특징이 있으며, 특히 덴마크산 삼겹살은 일본 국내에서 제조되는 비계베이컨의 주원료가 되고 있다. 작년 총수입량은 약 65만톤으로 그중 냉동품은 17만톤 정도였다. 수입품의 80%가 수입상사를 통해 가공업체나 도매업자에게 유통되며, 이들을 통해 슈퍼마켓, 외식업체 등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된다. 최근 냉장품의 수요의 증가로 슈퍼마켓에 의한 직수입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돈육 부분육 유통현황

단위 : 톤

부위/수량	국내 생산량	수입량	합 계	수입률(%)
목살	321,244	86,618	407,862	21.20
목등심	목살에 포함됨			
등심	177,147	260,194	437,341	59.50
안심	22,474	41,490	63,964	64.90
불기살	292,160	65,449	357,609	18.30
삼겹살	167,893	107,441	275,334	39.0
합계	980,918	561,192	1,542,110	36.40

자료 : 일본식육무역연구소 추정

E 6월초 돼지가격 계속 하락세

EU의 돼지고기 소매가격 상승에 대한 소비자

들의 저항이 거세어, 네덜란드의 돼지콜레라(Classified Swine Fever) 파동으로 인한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 효과를 상쇄하고 있는 가운데 EU의 비육돼지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6월 첫째주 덴마크의 돼지가격은 5.3% 하락했고 독일은 3.7%, 프랑스 4.9%, 네덜란드 2.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랑스의 E등급 돼지 평균가격은 작년 이맘 때보다 1.3%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고, 독일은 4.2%, 네덜란드는 6.5%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가격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백신접종에 의한 CSF 퇴치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 방법은 네덜란드와 독일은 찬성하지만 덴마크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돈시장, 돼지콜레라로 수급균형 무너지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classified swine fever)가 쉽게 퇴치되지 않아 EU의 돼지고기 수급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돼지고기 소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량이 줄고 있지만, 덴마크와 같은 네덜란드의 경쟁국가들에서는 종축돈 사육규모 증가세가 고무되면서 98년 6월 이후 돼지고기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있다.

독일 돼지콜레라로 소매가격 최고 50% 상승

독일은 금년초부터 돼지콜레라가 발생했지만, 현재는 진정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돼지콜레라로 살처분된 돼지는 총사육두수의 0.3%인 8만두나 된다. 현재 발생지역으로 부터의 생돈 수입금지 및 국내 발생지역에서 반경 10kg 이내의 생돈과 가공돈육의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독일의 돼지고기 자급률은 76%로 부족분을 네덜란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에

서의 돼지콜레라 영향으로 독일 국내의 돼지고기 소매가격이 5월 초순에는 50%나 크게 상승했다. 그 이후에는 서서히 하락하고 있기는 하나, 높은 돼지고기 가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덜란드 돼지 500만두 살처분 계획

- 돼지콜레라 284개 양돈장에서 발생

네덜란드는 금년 2월에 최초로 돼지콜레라가 발생된 이후 여러지역으로 발생이 급속히 확산, 6월까지 284개 양돈장에서 발생이 확인되었다.

이에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살처분을 위한 돼지 매입 상한두수를 500만두로 늘리기로 결정하는 한편, 주요 양돈지역인 남부를 중심으로 53만두의 돼지를 살처분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감시지역 내에서의 돼지의 이동 금지와 그 후 돼지고기의 이동시 가열처리 등의 조치에 따른 생산자들의 영향을 감안해, 돼지 매입을 실시하고 있는데(돼지 매입시 EU에서 70% 재정 부담, 30%는 네덜란드 부담), 대상 상한두수가 당초 80만두에서 220만두로 늘어난 후, 또다시 500만두로 늘어났다.

네덜란드는 EU 최대의 돼지고기 수출국(생돈 포함)으로 돼지콜레라로 EU시장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네덜란드 당국은 6월 상순까지 대책비를 7억길더(한화 약 3,157억원)가 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돼지고기 시장은 공급부족으로 일시 급등해서 덴마크의 돼지 지육 기준가격이 5월 중순에는 kg당 14.4크로네(한화 약 1,918원)로 1년전보다 40%나 상승했다가 그후 진정되고 있다.

돼지콜레라 피해액 4개월간 3,157억원

금년 2월4일 네덜란드의 북부 부라만트주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이래, 네덜란드 정부는 전

체 감염돈 및 주변지역의 돼지 매입과 해체처리, 오염지역의 가축, 사료 운송금지 조치를 취했고, 6월4일부터는 임신을 막기 위하여 운송금지 지역에서의 씨암돼지와 씨수돼지의 분리, 인공수정 금지 조치 청정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은 네덜란드로부터의 생돈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네덜란드 정부의 80만두 매입 이외에 식육 해체에 보조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게다가 오염지역이 확대되는 것에 따라 140만두를 추가하여 220만두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네덜란드가 6월3일까지 돼지콜레라로 입은 피해액은 총 7억 길더(한화 약 3,157억원)인데, 이중 5억9천만 길더(한화 약 2,661억원)는 돼지 매입과 해체비용으로 양돈농가들에게 보전되었다.

네덜란드 정부가 3월 시점에서 비공식적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수송금지 지역내의 돼지 사육두수는 700만두로, EU에 의한 수출금지 조치가 6개월 계속되면, 25억 길더(한화 약 1조1천2백75억원)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농무장관은 돼지콜레라가 해결되기까지는 최소 12월까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 돈육 수출 재개 전망 불확실

대만 당국은 돼지구제역 문제 처리를 놓고 고심중이다. 대만당국은 현재 백신 접종으로 발생속도를 둔화시키고 있다. 현재 대만의 양돈농가는 100두 이하의 소규모 농가가 5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정책에 의해 이 소규모 농가를 이농이라는 근경에 빠지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또한, 침입 경로가 귀국한 여행자를 통해, 또 중국에서 감염된 새끼 돼지의 수입과 오염된 돼지의 불법 입수등을 통해 수입되므로 그 경로를 확실히 알 수 없어, 재발의 가능성 또한 없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일본에 대한 대만의 돈육 출량은 4할을 차지하는데 현재 이 자리를 놓고 미국, 덴마크, 캐나다, 한국 등의 경쟁이 격

화되고 있다. 대만측은 선두의 자리를 내주고, 양도 줄어 들겠지만, 일본인의 기호가 바뀌지 않는 한, 여전히 팔릴 여지가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만측은 가축방역과 양돈의 생산 유통 체제 개편을 꾀하고, 수출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 농수성은 발생 그 자체가 없더라도, 바이러스가 없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수출 재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밝혔다

양돈업, 수출산업에서 내수산업으로 전환할 듯

- 돼지구제역 발생으로 양돈산업 구조 조정 돌입
- 환경오염 문제 맞물려 연간 1,000만두 생산할 듯

대만이 돼지구제역 발생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양돈산업을 수출산업에서 내수 위주로 돌릴 계획이다. 대만 정부는 좁은 국토에서 1,100만두나 되는 많은 돼지를 사육하는 데는, 환경오염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양돈산업을 수출 중심에서 내수위주로 전환할 방침이다. 대만은 작년에 일본으로 약 26만6천톤의 돼지고기를 수출, 일본 돼지고기 수입량의 41%를 차지했다.

또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양돈업에는 환경오염 문제가 부수적으로 따른다. 대만은 언제까지나 일본의 양돈장으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측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살처분된 돼지의 매설로 인한 2차 오염 문제도 클로즈업 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대만의 규모를 생각하면, 양돈업은 연간 생산량 1,000만두 정도를 초과하면 환경면 등에서 마이너스가 된다. 지금부터는 내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며, 수출산업으로서의 유지에 신중한 의견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정책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대만 당국은 1,100만두의 돼지 사육두수를 700-800만두

정도로 줄여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돼지구제역 발생 진정 단계

- 6월 18일까지 3백85만두 살처분

대만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돼지구제역의 발생이 이제 진정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수의당국에 따르면, 6월18일 현재 돼지구제역이 발생한 양돈장은 6,144개이고, 이들 농장의 돼지 1,011,421두가 돼지구제역에 감염되었다. 이중 184,231두가 사망하고 3,850,536두가 살처분되었다.

최근들어 대만에서 돼지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6월16일 태남현에서 발생한 56두이나, 그 이외 지역에서는 2주 이상 발생이 없고 전체적으로 발생이 진정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또한 돼지 주산지인 병동현에서는 21일, 고웅현은 34일, 운림현은 연속 28일간 각각 발생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호주 연간 100만두 생산 양돈장 건립 계획

- 싱가포르 기업, 일본과 한국 돼지고기 시장 겨냥

호주의 유력지인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는 6월 25일 “호주의 퀸즈랜드주에 연간 100만두의 돼지 생산이 가능한 대규모 양돈장이 건설된다”고 보도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에 따르면, 싱가포르 기업의 자회사인 유로판사 등이 호주의 퀸즈랜드주 다링다운즈에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미 브리스벤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유로판사 등은 이 양돈장에서 생산되는 연간 100만두의 돼지를 가공하여 이중 80-85%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나머지를 한국 등에 수출할 계획이다. 유로판사의 한 관계자는 “한국도 유망한 돼지고기 수출시장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